

98년 11차 총여학생회 집행부 회의 안건지 (98년 4월 29일)

1. 보고 사항

- 1)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 2) 각 국별 보고

2. 논의 사항

- 1) 설문지 코딩작업, 공청회 제안
- 2) 예산안 논의
- 3) 미인대회 관련 문화제-모토, 기조, 일정, 형식
- 4) 게르니카의 요구-에바다 문제
 - 5) 총여 10주기 행사 - 날짜, 실무.
 - 6) 대중제 찬반.

3. 공지 사항

- 1) 오늘은 미로의 생일입니다. 모두 함께 축하를...

4. 다음주에는...

- 1) 미인대회 준비 실무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대학생연대비상대책위원회

우· 451-860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봉남1리 26-6 /전화 (0333)63-0825<Fax겸용>

문서번호: 공대위 98-04

발신일: 1998. 4.

수신자:

참조: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수	번호		제	
			공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제목: 공개 질의서 발표 및 공대위, 비대위 사업 동참요청

(이하 11 장)

1. 귀 단체의 장애인 복지와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과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2.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사회복지 재단의 구조화된 지역비리, 장애인 시설이 지니는 총체적 모순과 비리에 맞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평택 에바다학교 학생·교사·학부모들과 뜻을 같이 하며 에바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하기 위해 구성된 모임입니다.
3.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전국대학생연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공대위와 함께 에바다 문제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행동하는 장애 관련학과, 관련 동아리 대학생들로 결성된 조직입니다.
4. 1996년 11월 27일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의 비리를 폭로하며 시작된 농아학생들의 시위는 장애인계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야농성 510일(98.4.24 현재)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지역 관료와 사회복지법인과의 지속된 구조적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혁하고 농성 주체인 어린 농아학생들에게 바른 복지 실현과 참된 교육현장을 되찾아 주고자 전국적인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인권에 대한 책임을 끈질기게 묻고자 자민련 토요집회, 평택역 대국민 선전운동, 통신운동을 비롯한 이러한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인터넷을 통한 통신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6. 에바다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와 교육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임을 우리 모두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이에 공대위와 비대위는 김대중 정부에게 10가지 장애인 인권보장과 참복지 실현을 위한 10가지 공개질의서를 각 장애인 신문사와 일간 신문에 발표함과 아울러 1998년 5월 9일 에바다 비리재단척결과 장애인 인권수호를 위한 제2차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귀 단체 또한 이 질의서 발표와 결의대회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가안으로 첨부한 질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동참함을 알려주시고 에바다 문제를 해결한 결정적 힘을 5월 9일 대회에서 보태어주십시오. 아울러 기타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아이들이 농성 중인 해아래집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에도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별첨 1. 상황개요에 관하여 정리 1 부

2. 2월2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 내용 1부

3. 지금의 활동 상황과 자료 내용 1 부

4. 김대중 대통령에게 띄울 질의서 내용 가안 1부

5. 해아래집 재정 상태와 모금운동에 관한 문건 1부

6. 5월 9일 결의대회에 관한 문건 1부

7. 질의서 첨가 내용과 답안 기안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장

전국대학생연대비상대책위원회 의장(직인생략)

● 상황 개요

96.11.27.

에바다 학생들 '최실자 원장의 편애와 후원금 착복'의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농성에 돌입, 평택경찰서의 과잉진압으로 3명의 청각장애인 학생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음.

96.11.28. 학부모, 교사, 에바다 장애인 종합 복지원 직원들 농성에 참여.

96.11.30.

최실자 농아원 원장(학교 서무과장, 장애인 종합복지과 관장 겸임), 양봉말 총무 구속

96.12.02. 학교 휴교령(12월 2일부터 7일 까지)

96.12.04. 경기도 교육청, 평택시 감사 착수

96.12.07 '에바다 정상화' 를 요구하며 학생, 학부모들 에바다 농아원 진입로앞 시위

96.12.13.

학부모, 평택시민단체, 장애인 단체등으로 구성된 '재단퇴진 및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책위' 구성

96.12.17. 평택시 2명의 관선 이사 파견

97.01.10. 에바다 농아원에서 한국 농아복지회로 농성 장소 이전

97.03.08.

서울역, '장애인 인권 확보 및 비리재단 퇴진을 위한 범국민대회'개최.

97.04.12. 농성학생들 평택시청 항의 농성

97.06.02. 농성학생들 에바다학교로 등교 시작

97.06.05. 한국농아인협회에서 현 농성장소인 '해아래집'으로 이전

97.09.04 최실자 원장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양봉영, 양봉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로 풀려남

97.10.25. 평택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평택역앞 시위

97.12.10. 평택역앞에서 무기한 텐트 농성

97.12.26. 에바다 사태 정상화를 위한 '대학생 연대 비상대책위원회' 건설

98.01.01. 에바다 사태 400일째, 텐트농성 23일째

98.02.02.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장애인 인권수호를 위한 제1차 범국민대회 개최

98.03.21.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장애인 인권수호를 위한 토요정기집회 시작

98.04.15. 평택시장 김선가의 자민련 입당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 공동 성명서

96년 11월 27일 청각장애 아동들이 배고픔과 추위, 강제노역과 폭력을 더 이상 참지못해 시작한 에바다재단내 최씨일가 퇴진을 위한 6번째 농성이 시작된지 이제 430일을 경과하고 있다.

TV, 라디오, 신문, 주·월간지에 280여차례 최성창일가의 비리와 범죄가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에바다 재단은 비리주범 최성창일가와 그 측근들에 의해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법적, 도덕적 자격을 상실한 이들 최씨일가와 그 측근들은 반드시 퇴진되어야 한다.

30여년간이나 어린 농아학생들을 이용하여 온갖 치부를 일삼고 사태 이후에 반성은 커녕 농아학생들을 매수하여 이들의 심성을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뜨린 철면피같은 이 범죄집단에게는 단 하루라도 장애인복지를 맡길 수 없다.

6억 7천여만원의 국고지원금 횡령과 근무하지 않고 봉급만 챙긴 13명의 천인적 유령직원, 이들에게 장애인은 놀아도 먹여주는 도구였을 뿐이다. 주민등록증을 2중 발급하여 국고를 2중으로 횡령했으며 그 확인된 숫자가 무려 88명에 이르고 장애인수첩도 2중으로 발급했다.

후원금, 후원품은 모두 빼돌려졌고, 어린 농아학생들은 재분공장에서 새벽 1시까지 강제노역을 당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농아어린이 70여명의 인신매매와 미군에 의한 성추행 방치 등 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집단들이다.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구타사망 의혹·실종·변사체 발견 등이 잇달았으며 사태 이후 여러명의 원생들 손목에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5~6개씩 생겨났다.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극도에 달한 폭력행사다.

이들 최씨일가가 저지른 이런 온갖 추악한 비리들은 지도감독 관청인 평택시의 관련 공무원들과 결탁되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범죄이다.

평택시는 94년, 96년 각각 정기행정감사에서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태 이후 김선기 평택시장과 평택시청은 끊임없이 거짓말과 허위보고를 일삼아 왔다.

97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김선기 시장은 11월말이 지나면 현 이사진들을 전원 퇴진시킨다는 약속을 하고서도 오히려 12월 19일 비리의 핵심인사인 최성호를 상임이사로 승인하고 이 사실을 국회 보고 때 고의 누락시켰고 사태가 해결되었다는 허위유인물 11만장을 만들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가가호호 돌렸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김선기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비리재단과 연루되었음을 증명한다.

에바다사태는 이땅의 400만 장애인과 전국의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복지와 정책의 문제점을 대변하는 사건이다. 감독관청과 공무원들의 비리사슬 의혹 등으로 장애인들은 항상 불이익이 당연시되고 시설장들은 어떤 비리에도 불사조처럼 쓰러지지 않고 더 공고한 입지를 갖게 되는 악순환의 상황을 상징한다.

따라서 에바다사태의 철저한 해결은 상식화된 시설 비리 척결과 진정한 장애인복지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한 비리사슬에 얽혀, 비리원흉들에게 발목이 잡혀 끌려 다니는 극히 일부 공무원들에게도 일벌백계의 결과를 가져와 공무원 사회의 도덕성 회복과 기강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에바다재단에서의 비리, 범죄자들을 완전히 퇴진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에바다재단내의 최씨일가, 비리관련 인사들을 전원 몰아낼 것을 촉구한다.

비리주범 최성창의 친동생인 상임이사 최성호와 이들의 측근으로 구성된 현 이사진을 전원 승인취소하고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라.

2. 에바다 비리재단과의 유착의혹이 강한 평택시청 김선기 시장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 수사를 진행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3. 비리 온상화한 장애인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998. 1. 31

경희대소리빛/고려대하나물다섯/공주대중학생회/대안불교청년회/대한정신지체인애호협회/민주화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부산장애인중합회/서강대중학생회/서울대손말사랑회/서울여대사회사업학과학생회/성분밖교회/실전불교전국승가회/연세대계쁜니카/연세대동아리연합/연세대중기독교학생회/연세대중학생회/우리민족서로돕기본부/이화여대동아리연합/이화여대손지/이화여대액액이/이화여대중연구회/이화여대중학생회/이화여대학보사/이화여대학생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권익시설축전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교노동연합/전국장애인인권리얼리티/전국특수교육과학생회연합/잡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전주교인권위원회/청년약사협회/청년정보문화센터/카톨릭대손모아/크리스찬아카데미사회교육원/한국농아인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한류속/에바다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익노련, 민주노동경기도본부, 에바다장애인중합복지관노동조합, 평택노동교육실, 평택민주노동자회, 평택세월결정년회, 골트아동복지회노동조합)

● 에바다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방향

1. 에바다 투쟁 500일의 의의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가학행위에 대한 농아 아이들의 작은 절규로 시작되었던 평택 에바다 사태는 이제 500일이 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택 외진 장애인 시설의 작은 문제로 출발하여 평택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진행되었고 마침내는 장애인 인권운동에 중심에 서는 의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시설의 비인간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대두시킴과 아울러 지역 주민과 함께 고민 함으로써 장애인 시설비리와 지역 관료와의 길고 긴 비리의 유착관계를 밝혀내고 이제는 장애인 인권운동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 장애인 스스로가 권리의식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그 부모들과 그들의 실질적 대변자인 몇몇 선생님이 이 투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장애인 운동에 있어 장애인 스스로가 오랫동안 눌러왔던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대상화된 존재에서부터 능동적이고 당당한 주체로 나선 사건이며 늘상 소시민적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 부모들이 당당한 권리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나아가는 부모운동의 실례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에바다 문제에 대해 확실히 대변해야 할 사회복지사들과 교사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 문제해결의 중심에 서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는 근 50년 넘게 이어져온 비리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사건이기에 500일을 넘게 싸워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장애인이나 사회복지가 개인의 영리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겠기에 3년이란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이 에바다 사건이 단순히 선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끈질긴 운동을 통해 전체 장애인시설, 사회복지 시설 및 학교의 비리를 드러내는 첫 신호탄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바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앞으로 그 어떠한 장애인 관련 비리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에바다의 정치적 해결

시설의 인허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김선기 평택 시장이 다시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선기와 최실자의 비리 고리 때문에 시장의 에바다 문제 해결의지는 빈약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에바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전이 될 경우 비리 고리는 더욱 탄탄해져 해결 될 것은 먼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심증적으로는 최실자가 에바다 학교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변용하여 김선기에게 정치자금을 대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립 시설과 관료와의 유착관계는 에바다 말고도 많은 시설에서 보편적으로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에바다의 정치적 해결은 바로 이 유착관계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선기가 재선을 하기위해 자민련의 공천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민련에게 항의전화와 팩스를 넣고 있습니다.

청 와 대: (02)735-0114~7 국 무 총 리: (02)735-7401
교 육 부: (02)720-3501~3 보건복지부: (02)503-7171
감 사 원: (02)7219-114 검 찰 청: (02)771-2300
경 찰 청: (02)364-3691 경기도지사: (0331)42-4800
평 택 시 장: (0333)52-3000 경기도교육감: (0331)48-2110
최 성 창(이사장 겸 교장): (02)532-2571,
자민련 대표전화 : 701-3355 팩스: 707-1637
총재실 전화 : 707-1961 팩스 : 701-7874
대변인실 : 706-8969
사무총장실 : 707-1638

김선기를 공천하지 말라는 것과 에바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자고 항의 전화와 팩스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에바다의 본질적 해결

이제까지 장애인 인권문제나 시설비리가 발생하여도 단 한 번도 제대로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문제를 풀어 가는 각 주체들의 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곧 장애인 그 부모들, 교사들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주체로 나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바다 문제를 계기로 이 각 주체들이 전면에서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에바다 문제해결은 장애인 운동이 진정한 진보적 사회운동으로 자라 잡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장애인 문제와 관련한 10개의 공개 질의서를 일간 신문에 게재하려 합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 작업을 하려합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별첨 4)

●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추후 통보함.

● 모금 운동에 관하여

• 해아래집 지출 내역서

내 용	금 액	비 고
해아래집 농성 하루 지출	평균 60,000원	
문건 홍보비(한달 기준)	120,000원	
해아래집 운영 비용(한달 기준)	520,000원	
통신 홍보비(한달 기준)	440,000원	
합 계	1140,000원 (한달 평균 비용)	
예바다 자료집 발간	340,000원	300부
예바다 비디오 자료 제작	500,000원	개당 10000
대자보 및 포스터 제작	1,100,000원	120,000부
플래카드	330,000원	
신문 광고비	500,000원	
	80,000원	2000개
합 계	2,850,000원(고정 비용)	

해아래집은 위와 같은 지출 비용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기금 마련을 모색하고 있으나 재단측 중상모략으로 어려움이 큼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아무도 풀지 않았던 사회복지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농아학생들이 전면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진정한 진실이 밀려 올 그 날 희망의 밑물이 밀려 들어 찰 그 날을 위해 우리 모두는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월급을 털어, 어린 학생들은 기도로서, 함께하는 대학생들은 발로 뛰며 이 나라에 올곧은 사회복지를 세우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관심으로 농아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되찾아 주고 힘없는 자들이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계좌번호

조흥은행 : 419-04-121267 (김 주 명)

농협 : 205031-52-099833 (김 주 명)

국민은행 : 232-21-0467-997 (김 주 명)

한일은행 : 080-044276-12-601 (김 주 명)

주택은행 : 610902-01-025-711 (김 주 명)

● 결의 대회에 관하여

1. 시 기 : 1998년 5월 9일 오후 1시

2. 장 소 : 평택 역

3. 참가 방침 : 각 단위 출석은 깃발을 꼭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장을 가능하다면 청바지에 하얀 티로 통일해야 합니다.

호르라기를 지참하시고 팔뚝에 빨간 천을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락을 꼭 부탁드립니다.

4. 주최 : 예바다 비리재단퇴진과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예바다 비리재단퇴진과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전국대학생연대비상대책위원회

전국특수교육학과학생회연합

5. 집회 의의 :

이번 사안은 단 시일 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번 집회를 기회로 계속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들을 집중하고 이 사안에 대한 지역 사회의 동참을 유발하기 위함입니다. 재단측은 막강한 재력과 비리의 구조적 고리로 말미암아 지역 관료와 더욱 유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재단과 평택시청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이번 집회에 대한 적극적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평택 지역 내에서는 그 동안 서명운동과 모금 운동으로 볼 때 지역 주민의 지지는 충분하다고 보아집니다.

에게 김선기 시장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공천을 저지하려 합니다.

별첨 7) 답변 기안

단체 이름 : _____

대표자 서명

1. 김대중 대통령 질의서 발표에 동참합니다

첨가하고 싶은 내용

2. 재정적 지원이 가능 합니다.

※ 참여 가능한 분야에 서명하시어 팩스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학내 성폭력 근절과 자치규약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합니다.

수신 : 성폭력 자치규약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각 급 학생회

발신 :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0. 들어가며

신입생 환영회, 풋볼이, MT에서 뿐 아니라 동아리방, 과방, 심지어는 교실에서까지. 이 모든 장소가 성폭력 사건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96년도부터 그동안 숨겨져 있던 학내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학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각 대학의 여성운동조직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18개 대학이 결합되어 있는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에 의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제정운동(이하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해 11대 총학생회 선거와 35대 총학생회선거 당시 대부분의 선본에서 성폭력자치규약제정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던 것이나 여성연대회의에서 주관한 설문조사에서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에 대해 설문에 응했던 남녀 95%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을 미루어보아도 학내 전반적으로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는 조성되어 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실질적인 흐름이나 성과는 아직 찾아보기가 힘들다. 학교당국과의 협상을 논의로 치더라도 아직 넘어야 할 벽은 많이 남아 있다. 단순히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여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또한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정조'에 대한 침해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사회적 편견과 단절하는 일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칙과는 다른 자치규약의 제정으로 자치권의 실제적인 의미를 실천하는 일이라 한다면,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은 대학문화와 학생운동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며 그만큼 다양한 대중들의 실천을 요구하는 운동일 것이다.

1.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은 여성운동이며,

대중운동인 동시에 자치운동이다.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은 성적 자율권 확보를 전제로 하는 운동이다. 여성운동은 성의 차이가 차별과 억압의 근거가 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한마디로 여성운동은 여성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에 기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여성의 몸과 성은 이러한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설정이 된다. 오랜 기간동안 여성이라는 몸이 언제나 남성의 소유물로, 여성의 인격과 유리된 성에화된 육체로만 얽히지면서 배제되어 왔기에,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주인은 바로 여성자신이라는 관점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은 독자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기본이 된다. 또한 성폭력의 문제는 남성 지배적인 구조와 문화를 극단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은 남성 지배적인 권력구조에 문제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성적자기결정권확보를 통해 여성권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이다.

또한 성폭력자치규약제정운동은 대중운동이다. 그동안의 대중운동이 대중에 의한 운동이 아닌 단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관료적, 수직적인 운동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대중과 괴리되어 버린 현실에서 근 몇 년동안 운동의 위기라는 말과 함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여성운동의 쟁점 또한 대중화되지 못하고 직접적인 대학사회 내의 변혁을 촉발해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성폭력자치규약제정운동은 그 속에서 중앙집권적 권력과 방식이 아닌 여성주의적 권력과 방식을 실험되고 실현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실험들 속에서 이 운동은 소수만의 운동이 아닌 대중과 함께 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그 가능성들을 열어가야 한다.

동시에 성폭력자치규약제정운동은 자치운동이다. 학생자치권 확보라는 테제는 96년도 이후 더욱더 광폭하게 다가오는 자치권 탄압과 대중적 실천없는 구호의 나열 속에서 현재 선언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성폭력자치규약제정은 자치권 확보의 실질적인 흐름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 제정하고 선포하는 학칙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제정하는 자치규약의 실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성폭력자치규약제정운동은 대중적 논의에 기반한 공동체 내의 자치규약 제정과 공동체 문화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자치운동이다.

2.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방향성은 성폭력에 대한 여성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으로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의 자율적인 동의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것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대중적인 공유 속에서 서로의 성적 자율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겠다는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자치적인 규약의 의미인 것이다.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의 기본적인 전제는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입장으로 성폭력에 관련한 모든 언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 성적 자율권의 침해여부, 조사과정과 처벌, 예방과 재교육 등에 대한 것들이 여성의 입장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지속적인 여성적 관점의 담론 형성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대학구성원의 자율적인 동의에 근거한 규약인 자치규약으로서의 학칙제정 의미속에서 대학운영의 민주주의에 대한 제기와 운동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실물적인 장치구축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한다. 문제제기의 수준을 넘어서 실물화시켜내기 위한 다방면의 활동, 즉 전문가와의 연계, 학교당국과의 협상, 학내 자치기구들과의 연대활동 등을 통해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한다.

3. 5월 14일 공청회로, 자치규약 운동의 깃발을 올리자!

지난 1년 동안 여성연대회의에서는 국내/외 대학 학칙을 기반으로 하여 가안을 만들었다. 이 가안은 단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내 여성주의 담론을 확산시키고 대학의, 더 나아가 사회의 가부장적 폭력성을 해체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가안은 현재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님에게 의뢰된 상황이며, 이 가안은 각 학교에서 각기 사정에 맞는 자치규약을 제정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4월 동안은 '성의식과 학내 성폭력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업을 약 10개 학교에서 진행했다.

학칙 가안과 설문지 결과를 가지고 여성연대회의에서는 5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 공청회는 전국적으로 대학내 성폭력 자치규약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본격적인 제정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일시 : 1998년 5월 14일 늦은 5시

장소 : 이화여대 (구체적 장소는 아직 미정)

프로그램 : *공청회*

사전행사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고발하는 퍼포먼스

1부

개회사

98년 상반기 여성연대회의 활동 보고

'학내 성의식과 성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2부 본 공청회

발제 : ①학칙 제정의 필요성

②학칙 가안 발표

③앞으로의 학칙 제정운동의 방향

여성연대회의 공청회 준비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6	27	28	29	30	1	2
	← 후원단위	모집 포스터제작	포스터 인쇄	← 설문지	코딩	2 12시 연대회의 - 연세대 코딩 완료 포스터완료
3	4	5	6	7	8	9
	전국우편발송 포스터 부착	원고마감 12시 연대회의 - 연세대				1시 연대회의 - 여학 제정 확보 퍼포먼스연습
10	11	12	13	14	15	16
선전물 제작	자료집 인쇄 선전물부착			5시 공청회		
17	18	19	20	21	22	23
	← 연세대	문화제	주간			미스코리아 대회

대동제 기획안(초안)

발신: 연세대학교 제35대 총학생회 문화국
수신: 연세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이병주
전담제 2대제
장려
(사형수주)

일 5/10	월 11	화 12	수 13	목 14	금 15	토 16	비고
	● 사실한마당 -우리의 소백골 우습게보지마마 (100주년 or 100년) ● 영화제 (2편 정도 / 작품 매칭)	98 부악대동제 ● 개막제 (민주광장) -길놀이 -단심줄포기 -PC그림그리기 -단대별 조형물 만들기 -축하공연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대회 ● 마당극 (남녀상, 열지사) [정영원광장]	● ROCK FESTIVAL (1부/2부) ● YBS행사 (술속의 향연) ● 백양로물 덮는 PC만들기	● 응원제 (야구장) ● 민속놀이 한마당 (민주광장)	● 전달제 노래제 (삼거리) ● 폐막제 ● 98대학문화 찾기 (꽃다지, 인치한, 어이메이 한글 노래)		
		자율과 공존을 위한 한마당					
		● 학부제 한마당	● 장애학우 한마당	● 복학생 / 편입생한마당			

1.개막제

- 1)<단심줄 포기>는 길놀이와 함께 이어지는 행사로 진행하며 사전 연습이 필요.
- 2)대형PC천에 그림 그리기는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며 완성 후 대동제 기간 동안 민주광장 양 옆에 걸게 된다.
- 3)축하공연은 대동제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흥겨운 분위기로 이끌 수 있는 노래공연으로 만든다.
- 4)단체 줄넘기/줄다리기 대회는 사전에 참가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다.
-->20미터 정도의 길이로 하되 재료에는 제한이 없으며 가장 '이색적이고 예쁜' 줄을 만들 것, 그리고 그 줄로 개막제 때에는 단체 줄넘기가 진행된다. 줄넘기도 가장 '이색적이고 신나게' 하는 팀에 가산점이 있게 된다. 응원과 음악사용가능
-->참가팀을 두 편으로 나누어 각각 다섯 팀을 선정한다('예쁜 줄'로 가장 신나고 재미있게 줄넘기를 한 팀으로)그 줄은 페타이어에 묶어 양 편이 줄다리를 하게 된다.
- 5)단대별 조형물 만들기

-->주제를 각 단대별로 정해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추어 조형물을 만든다.
(기본재료는 준비되어 있으며 그 외의 재료는 각자 준비해와도 좋다)

4)5)번은 상품이 있을 예정

2.자율과 공존을 위한 한마당

①학부제 한마당-각 단대별로 학부제를 고민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하여 학부제의 실상을 파헤치고 학부제의 장단점 뿐만이 아닌 학부제 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한다. <모의 수강신청>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②장애학우 한마당-동아리 게르니카와 학회 <복지와 사회 연구회>가 함께 만드는 <장애체험>과 거리 전시회 등이 진행될 예정

③복학생 편입생 한마당-현재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복학생들과 편입생들의 자리. 특히 고학번 복학생들을 중심으로 취업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도 들어볼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본다.

3.진달래 노래제-학내의 문화적 아마추어리즘을 대동제라는 기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험하는 자리

1)참가자격-각 과,단대/동아리/학회 관계없음

2)참가기준-창작곡이나 편곡된 기존곡

3)진행일정-신청은 5월 1일까지 하며 5월 6일 (수)필요한 기자재 확인하는 회의
5월 7일까지 참가단체명,악보, 참가인원의 명단을 제출할 것

4)시상-1,2,3등과 인기상으로 상품 미정